

스리랑카 원조동향 보고 :

2005년 12월

1. 일본

■ 동북부 지역 도로개발을 위해 40백만불 추가 지원 확정

- 일본은 스리랑카 동북부 지역의 도로개발을 위해 40백만불을 추가 지원키로 함.
- 금번 지원분 외에 일본은 이미 쓰나미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하여 180백만불(차관 100만불, 무상원조 80백만불)을 지원한 바 있음.

- 차관 지원 내용 : 연이율 0.75%, 상환기관 40년의 지원조건으로 쓰나미 피해지역의 인프라 개발 및 Central Bank에서 쓰나미 피해 중소기업들을 위해 마련한 Susahana Loan Scheme 지원
- 무상원조 지원 내용 : 수산분야(27%), 도로개발 분야(21%), 교육분야 (20%), 기타(식수, 위생시설, 보건의료, 주택 및 전기 등)

■ 트럭 64대 지원

- 일본 정부는 스리랑카 정부의 쓰나미 피해복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픽업트럭 64대를 무상 지원

- 금번 지원되는 트럭들은 11개 District 및 53개 Divisional Secretariats에 배분되어 지방 행정기구의 쓰나미 피해복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활용될 예정임.

■ JICA의 5년 과정의 현지연수 프로그램 중 1차년도 사업 종료

- JICA가 지원하는 5년 일정의 현지연수(In-Country Training Programs; ICTPs) 프로그램 중 1차년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
- 콜롬보대학 컴퓨터학과(University of Colombo School of Computing; USCS)에서 진행되었으며, 1차 수료자는 총 16명

- 동 현지연수 프로그램의 목적은 스리랑카내 IT 산업기반의 역량강화를 통한 청년층 고용 창출임.

- 현지연수 프로그램 개요

- “Interactive Multi-media of E-Learning Content, Design and Development on Web Based Training” 등으로 24일간의 교과과정 구성

- 연수참가자는 직업훈련청(Vocational Training Institute), 콜롬보대학, 켈라니아대학, 스리자야와르다나푸라대학, 모라투와대학, 개방대학 등에서 추천
- 스리랑카 내국인을 위한 2개 과정이 매년 개설되며(ICTP), 단계적으로는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3국 연수(Third Country Training Program)도 추진 예정임.

2. 이태리

- 스리랑카 남부 및 동부 지역의 쓰나미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총 52백만 유로 상당의 재정 지원
 - 현재 교육, 의료보건 및 환경 분야 42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음.
 - 특히, 15개 프로젝트가 남부 골 및 동부 트린코말리 지역에서의 학교 개발과 관련한 사업임.

3. 독일

- 74.3백만 유로 상당의 무상원조(57백만 유로) 및 차관(17.3백만 유로) 지원협정 체결
 - 17.3백만 유로의 차관을 KfW(German Reconstruction Bank)을 통해 지원하며, 동 차관은 자프나-킬리노츠치 송전망 복구 및 동북부 지역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투입 예정임.
 - 기술협력 사업으로 21백만 유로의 무상원조 지원, GTZ(German Agency for Technical Cooperation)를 통해 동북부 지역의 직업훈

련, 영세사업자 지원 등 분쟁지역 복구사업 실시 예정임.

- 쓰나미 피해지역 복구를 위하여 36백만 유로의 무상원조 지원, 직업훈련, 주택개발, 인프라시설 복구, 교육 및 영세, 중소기업 진흥 사업 실시 예정임.

■ 쓰나미 피해지역 인프라 복구에 15백만 유로 지원

- 독일은 독일개발은행(German Reconstruction Bank)인 KfW를 통해 바티칼로아 지역의 인프라 복구를 위해 15백만 유로를 지원키로 함.
- 금번 지원사업은 벨라아츠체나이(Valachchenai) 지역의 지역용수 공급망 등 기존 인프라 시설의 복구 및 신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.

■ 해안지역의 재해복구 주택건설을 위한 가이드북 발간

- 독일 GTZ는 주택건설부 산하 “전국 주택개발 위원회(National Housing Development Authority;NHDA)”와의 공동작업으로 재해 후 해안지역의 주택복구를 위한 지침성격의 책자 발간(Guidelines for Post Disaster Housing in Coastal Sri Lanka)
- 동 책자는 크게 아래 두 섹션으로 구성됨.
 - 해안지역 주택건설과 관련한 스리랑카 건축관련 법규 안내
 - 재해복구 사업중 주택건설 부문에서의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모범관행 안내

- ① 참여적 개발 방식, ② 정착계획, ③ 주택 지구 및 가구별 레이아웃, ④ 열효율이 높은 주택 건축방식, ⑤ 지속가능한 설계, ⑥ 원자재의 효과적인 활용, ⑦ 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택 건축방식 등

4. 스웨덴

■ '06 ~ '07 개발협력 협정 체결

- 스웨덴은 '03년 체결한 양국간 개발협력협정(development cooperation agreement)을 갱신, '06~'07년간 23.4백만불 규모의 무상원조 지원을 확정짓고, 평화·민주주의·인권증진, 빈곤완화, 쓰나미 피해복구 지원 등 우선지원 부문 선정

5. 프랑스

- 트린코말리 지역 용수공급 확대(the Greater Trincomalee Water Supply Scheme)를 위하여 10백만 유로 상당의 재정지원 협정 체결
 - 칸탈레(Kantale) 지역 정수장 복구 및 확장, 마하웰리(Mahaweli) 강유역 취수펌프장 및 40km의 송수관로 건설
 - 프랑스는 이미 쓰나미 복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트린코말리 지역의 송수관 및 배수로 등 기초인프라 복구를 위하여 64백만 유로 상당의 TIIP(Trincomalee Integrated Infrastructure Project)를 지원한 바 있음.

6. 미국

■ 향신료 산출 시범마을 개발

- 스리랑카 향신료 위원회(Spice Council)는 미국 USAID의 The Competitiveness Programme(TCP) 일환으로 마탈레(Matale) 지역에 향신료 산출 시범마을 개발 계획 수립
- 동 시범마을 개발 사업을 통해 향신료 작물을 생산하는 영세농가와 표준 규격에 맞춰 향신료를 가공하는 중앙집중화된 생산시설을 연계하는 시범 마을을 조성
- 동 사업을 통해 영세농가의 향신료 작황 수준을 경제적 자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림은 물론, 지속가능하고 수출을 목표로 하는 시장지향주의 생산농가로 개발하고, 영세농가의 집단화를 통해 가구별 생산역량을 확충,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.
- 동 사업추진을 위하여 Spice Council이 부지 제공 및 사업운영 등에 소요될 예산 일부(25%)를 부담하고, USAID가 나머지 75% 부담

■ 지방 지역 산업지구 조성사업

- 미국 정부는 지방지역의 기간산업 개발 및 이를 통한 고용창출 증대를 위하여 함반토타, 케골 및 암파라 등 3개 지역에 총 60백만 불을 투입, 산업지구(industrial zone) 조성 예정
 - Millenium Development Fund로부터의 재정 지원으로 전액 무상
- 지역별로 20백만불씩 투입하여 40여개 이상

의 대규모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며, 이는 지방거주 노동력의 도시로의 이주를 줄임으로써, 지방도시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.

7. 인도

■ 콜롬보-마타라간 160km에 이르는 철도 현대화 사업 지원

- 현 철로구간 개보수 및 현재 콜롬보-칼루타라 구간에 한정된 복선을 마타라까지 확장
- 철로 노후화에 따른 속도제한으로 현재 콜롬보-마타라 철로 이용시 3시간이 소요되나, 동 현대화 사업을 통해 2시간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

8. UNDP

■ 지방 행정기관의 쓰나미 피해복구 역량강화 지원

- 스리랑카 남부 및 동북부의 쓰나미 피해지역 지방정부 및 기관의 쓰나미 피해복구 업무 역량 제고를 위하여 트랙터 및 트레일러 각 63대 지원
- 금번 지원은 노르웨이와 독일 정부가 재정부담하는 CADREP(Capacity Development of Recovery Programme)의 일환으로, 동 프로그램은 효율성, 효과성, 대응성, 책임성 및 투명성 등을 포함하는 지방정부의 국정 관리 역량 배양을 목적으로 하며, 이에는 지방행정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이해집단의 재해복

구 사업 관리 역량 및 지속가능한 행정서비스 제공역량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함.

- 상기와 같은 물질적 지원 외에 스리랑카측 재건복구 프로그램 담당자 및 선별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참여적 개발, 프로젝트 주기관리, 재정운용기법 등에 관한 전문교육 실시
- 동 프로그램은 10개의 district secretariat, 48개의 divisional secretariat, 10개의 district audit office 등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, 지방정부 기관 외에도 지역별 직업훈련청 및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 등도 대상으로 함.

9. 기타

■ 건축기술 훈련원 지원

- 스리랑카 내부적으로 약 4만여명의 건축부문 기능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며, 이는 쓰나미 피해복구 작업의 신속한 추진을 어렵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음.
- 이러한 관점에서 Federation of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(FCCISL), National Construction Association of Sri Lanka(NCASL), Chamber of Skilled Craft of Koblenz 등 3개 기관은 트린코말리, 파야갈라 및 암파라 지역에 3개의 건축기술훈련원을 지어 실업상태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건축부문의 수요를 충족시킬 기능인력을 양성키로 하였음.

- 동 85만 유로가 투입되는 금번 사업은 네덜란드와 독일 정부의 지원으로 추진 예정임.
- 2년간의 훈련과정은 목공, 철제가공, 설비, 에어컨, 도료, 전기배설 등에 대한 기술훈련으로 구성되며, NCASL 출신의 강사진이 독

일 직업훈련기술 수준의 교과과정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임.

[자료: 주스리랑카 KOICA사무소]

스리랑카 원조동향 보고 :

2006년 1월

1. UAE

- UAE 쓰나미 피해지역 주택 1천호 복구 지원
 - UAE의 적신월사는 UN-HABITAT를 통해 주재국 쓰나미 피해지역인 골, 트린코말리, 암파라 등 지역의 주택 1천호를 복구 및 건축기로 하였음.
 - 금번 지원되는 UN-HABITAT의 주택사업은 실행과정에서 지역주민을 의사결정 단계에서 최우선 고려하는 “community-based approach”를 모든 프로젝트에 채택, 주민으로 구성된 지역별 조직이 건축의 제반 단계별 과정을 직접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것임.

2. 일본

- JBIC, 지방 도로개선사업에 50백만불 지원
 - JBIC은 지방지역 도로개선을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총 50백만 불 규모의 지방도로 개선사업(Provincial Road Improvement Project)을 추진키로 함.

- 캔디, 마탈레, 누와라엘리아, 케골, 라트나푸라 등 지역내 총연장 600km에 이르는 지방도 및 70개 교량의 개량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, 약 400 만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
- 동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로개선을 통하여 주민들의 직장, 학교 및 병원 등 시설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, 도로개선에 따른 유통여건 개선을 통해 지방의 상업활동을 활발하게 함으로써, 지역주민들의 생활수준을 개선하는 것임.

■ 쓰나미 피해지역 학교 지원

- 일본은 쓰나미 피해지역 학교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파야갈라 지역의 Roman Catholic Girls School 교사 신축사업(약 70만불 상당)을 추진하고 있음.

※ 금번 신축교사는 강당, 실험실, 교무실, 직원실, 컴퓨터실 등을 갖춘 3층짜리 건물로 JICA가 설계를 담당하였으며, 감리 등을 포함한 사

업 관 리 는 JICS(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s)에서 수행

- 일본은 동 학교 외에도 해안가의 쓰나미 피해 지역에 13개 학교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
- JICA 연수생동창회는 스리랑카 혈액수혈국(National Blood Transfusion Service)과 공동으로 “Blood Donation Campaign”을 개최하였으며, 동 행사에는 연수생동창회 회원, 일본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음.

3. 세계은행

- 도로 및 교육사업에 160백만불 지원

- 세계은행은 스리랑카 도로개선 사업에 차관 100백만불 및 교육개선 사업에 무상원조 60백만불을 지원키로 하였으며, 이는 세계은행의 대스리랑카 지원액 중 최고임.

- 도로개선 사업의 경우, 620km에 이르는 니팜부와-캔디, 골-데니아야 및 파데니아-푸팔람 구간의 국도 및 635km에 이르는 우바 및 남부지역 지방 도로의 유지보수 및 복구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.

※ 특히, 스리랑카 정부는 세계은행에서 차관 지원되는 100백만불과는 별도로 디젤 및 페트role에 대한 특별세 부과를 통해 도로개발신용기금(Road Development Trust Fund)을 조성하고 스리랑카 자체적으로 2006년도 30백만불 및 2010년도 46백만불을 별도로 부담하여 2006년도부터 6년간 총 연장 600km(375마일)에 이르는 국도 및 지방도로 확충사업 추진 예정임.

■ 직업훈련 및 도시 기반 인프라 확충사업에 70백만불 차관 지원

- 직업훈련 분야 지원사업(20백만불)

※ 직업훈련 교육에서의 질적수준 개선, 접근성 및 효율성 제고와 직업훈련교육시스템(Technical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System)의 역량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직업훈련교육개발(Technical Education Development) 프로젝트 추진 예정이며, 기술/기능인력에 대한 수요공급 격차 해소를 통한 원활한 기능인력 양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※ 라트나푸라, 아누라다푸라, 바둘라, 캔디, 쿠르네갈라, 마라다나 등 6개 지역 소재 기능대학(Technical College) 개선사업 및 직업훈련기술종합대학(University of Vocational Technology) 설립 등 2개의 주요사업으로 구성되며, 동 사업에는 첨단장비 지원 및 주재국 내/외에서의 연수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음.

- 지방소재 도시지역 기반인프라 확충사업(50백만불)

※ 지방 지역 중소규모 도시들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활수준 개선 및 도시관리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※ 용수공급, 위생시설, 도로, 상하수 시설, 폐수처리 및 쓰레기 관리, 기초보건 시설, 공공도서관, 지역주민 여가시설 등에 대한 시설개선 및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.

4. 월드비전

- World Vision Lanka, 쓰나미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식수 지원

- 월드비전은 매일 105,000리터의 식수를 받

라피티야, 카투윌라, 히까두와 등 쓰나미 피해주민 임시주거 지역의 공용식수대 및 가정에 지원하고 있음.

구 분	모국어 교과 기준학점 이수율	수학 교과 기준학점 이수율	영어 교과 기준학점 이수율
도시 지역 평균	51%	52%	23%
농어촌 지역 평균	34%	35%	7%
스리랑카 전역 평균	37%	38%	10%

자료 : National Assessment of Grade 4 Learning Outcomes; National Education Research and Evaluation Center, University of Colombo

- 월드비전은 동 식수공급 사업에 매월 약 1만 불을 투입하고 있으며, 동 사업과는 별개로 해당 지역의 식수난 해결을 위해 “National Water Supply and Drainage Board”과 공동으로 식수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.

5. 기타

■ 교육분야 5개년 개발계획

- 스리랑카 정부는 상기 언급한 바 있는 세계은행 지원액 60백만불을 투입, 교육분야 5개년(2006-2010년)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, 이와 관련 세계은행은 스리랑카 정부의 동 개발계획 실행프로그램의 전 단계에 걸쳐 지원할 계획임.
- 스리랑카의 경우, 기초교육(1-5학년) 분야에 있어서는 교육기회의 확충측면에서 볼때,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.
 - ※ 5년 과정 순 이수율 : 남녀 모두 95% 이상
- 이에 향후 5년간의 교육목표는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염두에 두고, 초등 (1-9학년) 및

중등(10-13학년) 교육을 망라하는 교육개발 계획 수립(Comprehensive Education Sector Development Framework and Program for the period 2006-2010)

- 스리랑카 정부는 현 수준에서 취학을 또는 등록율 확충보다는 학업성취도 향상을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.

※ 모국어, 수학 및 영어 등 기초학력에 있어 학점을 이수하지 못해 진급하지 못한 학생비율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며, 이와 관련, 노동간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.

- 동 5개년 개발계획의 주요 목표는 아래와 같음.

- ① 초등, 중등교육에 있어서의 공평한 교육기회 확대
 - 지방지역 소재 학교의 시설확충 및 과학·영어 등 교과과정의 양질의 교육과정 제공이 가능하도록 인적, 물적 네트워크 구축
 - 장애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강화
 - 초, 중등 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교과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이를 통한 고용기회 확대
- ②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 제고
 - 국제동향을 감안한 교과과정 재구축 및 개선
 - 교사의 교수능력 강화
 - 학사 검정 시스템(시험 등) 현대화
- ③ 교육에 있어서의 경제효율성 및 자원배분의 공정성 강화
 - 국가 및 지방별 교육시스템에 대한 다년간 계획수립, 실행 및 모니터링을 위한 중기 예산계획 수립
 - 교육예산의 공정한 집행 및 투명성 확보를 위

하여 예산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(PEQETS:Public Expenditure and Quality Education Tracking System)

④ 교육행정역량 및 행정서비스 강화

- 교장 및 교사 등 인력의 역량을 제고하고,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권력 균형적이고 학교중심적인 학교경영 및 학교 발전을 위한 이상적인 모델 구축
- 제도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진단 및 역량분석
- 교육현장에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 전략 실행

■ 쓰나미 재건기금 관련 NGO들의 도덕적 해이

- 주재국 주택개발부에 따르면, 상당수의 NGO 단체들이 각 국 정부 및 기타 재원으로부터 모금한 쓰나미 피해 기금의 사용에

있어 불성실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함.

- 주재국 정부와 쓰나미피해복구 사업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한 총 25개의 단체중 일부 NGO들은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리랑카를 떠나 본국 및 파키스탄 등 인접국에서 기금을 남용하는 사례가 있다 하며, 이에 따라 주재국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NGO들의 주재국내 사업추진에 있어 투명성 및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대상 NGO를 선별해 나갈 것이라 밝힘.

[자료: 주스리랑카 KOICA사무소]